참 지혜

**<전도서 7장 13-22절>**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19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21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고린도전도 1장 30절>**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전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다고 하지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살핀 후 이 탁월한 지혜자가 내뱉은 첫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얼핏 들으면, 인생은 열심히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헛된 것을 좇으며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지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왕이었기에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헛되고 무익한 수고였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 결국엔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갈 것들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혜에 욕심이 많았는데,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이에 과도히 집착하는 것도 헛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장래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어나길 원치 않는 일이라고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언젠간 죽어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유한하고, 세상은 모순적이며, 미래는 모호합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관념 속의 하나님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실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그 현실인식으로부터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속한 분이시고, 우리는 시간에 매인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은 어리석고 무엄하며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은 그런 헛된 일에 매달립니다. 성경은 바로 이를 일컬어 ‘죄’라고 부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선물들을 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들로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 좀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형통케 하는 복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삶엔 고난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보면 형통함은, 곤고한 때를 잘 지나는 일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곤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되면 고난을 다 피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형통한 상태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돈이 좀 더 많아지면? 힘을 좀 더 갖게 되면? 지혜가 좀 더 많아지면? 어쩌면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접근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곤고한 날들을 다 피할 순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우리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로지 거기에만 골몰하며, 그것만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선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되돌아 보라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보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있는지, 잠시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가 그려놓았던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지 생각해보란 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듯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깨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 예비하신 좋은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인내와 연결시키고, 또한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4-5)

이어서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과 악인에 관련지어 말합니다. 구약의 전통은, 의로운 사람은 오래 살고, 악인의 날은 짧으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는 이 구약의 전통 교리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보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반대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려 애쓰지 말라는 뜻인가?

하지만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럼 무슨 말인가? 18절을 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마라! 여기서 ‘이것’과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한 사람이 되라는 말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실제보다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환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의롭다는 환상, 그가 가진 악한 모습이 내게는 없다는 환상 속에서, 나를 그보다 의롭게 여기고, 거기서 내 자존감을 확보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 험담이나 저주를 하면 분노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며 흥분하곤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의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이에 대해서든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말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는 없다 해도, 악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합니다 (약4:17).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시는 분입니다. 남이 내게 악을 행했다 해서 나도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을 행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는, 의롭고 지혜롭게 살되 이를 과장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참 지혜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진실한 회개, 진실한 용서, 진실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지혜가 남을 깍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일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립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나타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로 바라보며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 속에서의 거룩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도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 앞에 한 형제자매를 그 모습 그대로로 바라보며 사랑하려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진정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연약한 내 형제자매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아니라,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변화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약의 본문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에 또 하나의 지식을 덧붙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구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마치 새로 태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갇혀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려면 누군가 밖에서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열쇠가 되십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권면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환상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과 다른 이를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섬기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지혜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 품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